

오늘은 AI의 비즈니스 활용 세미나가 오전에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WSJ: 연준, 금리 인하 시점과 양적 긴축 속도 낮추는 시기 고민

[미국 금융]

- Bloomberg: 설문 조사 “올해 미 모기지율은 5.5%로 떨어질 것이다”
- WSJ: 기업체와 소비자 다시 대출에 나선다

[오일]

- CNBC: 중동 위기 커지고 있지만, 유가는 다시 떨어져...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Bloomberg: 미 근로자들, 어느 때보다 직장에 대한 자신감 최저치 기록
- WSJ: 미 시추기업들, 증가하는 전력 소비량에 자체 전력망 구축 시도
- WSJ: 월마트 매니저, 연 40만불까지 벌 수 있다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WSJ: A Little Dual Easing Soon Could Help the Fed Avoid Major Easing Later

연준, 금리 인하 시점과 양적 긴축 속도 낮추는 시기 고민

- 연준은 이번주 회의에서 금리 변경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며 그리고 7조7천억달러 규모의 국채, 모기지 및 기타 자산을 매달 약 8백억불씩 계속 줄여 지난 2022년 6월 시작한 양적 긴축 과정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 일부 전문가는 5월 연준 회의에서 연준이 6월부터 자산 매각 속도를 늦출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WSJ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Mortgage Rates in US to Drop to 5.5% in 2024, Survey Shows **설문 조사 “올해 미 모기지율은 5.5%로 떨어질 것이다”**

- 올해 미 모기지율이 하락해 어려웠던 부동산 시장에 낙관론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최근 블룸버그 마켓 라이브 펄스 설문조사가 밝혔다.

- 236명 응답자중 중간치는 30년 모기지가 연말에 5.5%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이는 현재 6.69% 수준에서 0.5% 포인트 이상 하락한 것이며 3년 연속 상승후에 처음으로 연간 하락하는 것이다.

Bloomberg 기사

WSJ: Businesses and Consumers Are Borrowing Again, in 8 Charts 기업체와 소비자 다시 대출에 나선다

- 모기지나 회사채 등의 부채 비용 상한선을 결정하는 미 국채 금리가 수년 만에 최고치에서 하락했다. 기업과 개인의 대출이 더 쉬워졌다.
- 투자자들은 신용 시장을 경제 건전성의 척도로 삼기 때문에 이번 상황은 미국이 오랫동안 우려했던 경기 침체를 계속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낙 관론을 일으키고 있다.

WSJ 기사

[오일]

CNBC: Oil prices fall after Iran-linked drone strikes kill three U.S. troops, Biden vows retaliation 중동 위기 커지고 있지만, 유가는 다시 떨어져...

- 오늘 월요일 유가가 다시 떨어졌다. 주말 동안 요르단에 있는 미군이 이란 의 지원을 받는 무장단체에 공격받은 후 유가가 올랐지만 떨어진 것이다.
- 글로벌 벤치마크 브렌트유가 1.24달러 또는 1.48% 감소해 배럴당 82.31 달러를, 서부 텍사스유 선물가는 1.20달러 또는 1.54% 감소해 76.81달러 를 각각 기록했다.

CNBC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Bloomberg: US Workers' Confidence in Their Employers' Outlook Hits New Low 미 근로자들, 어느 때보다 직장에 대한 자신감 최저치 기록

- 미 근로자들이 어느 때보다 일자리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있다.
- 고용주 리뷰 사이트인 Glassdoor에 따르면, 향후 6개월 뒤, 직업 안정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근로자의 비율이 이번 달에 45.6%로 떨어진 것이

다. 이는 전월 대비 2% 포인트 가까이 감소한 것이며, 2016년 이래로 가장 낮다.

- Glassdoor의 수석 경제학자인 Daniel Zhao는 고용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으며, 중간 관리자급의 직원들은 더 적은 인력과 예산으로 성과를 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 해고는 다양한 업계에서 지속되고 있으며, 채용 공고 사이트인 Indeed에 따르면, 채용 공고는 작년 동안 15% 감소했고, 금융 분야는 31%,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는 44% 급감했다.

Bloomberg 기사

WSJ: U.S. Oil Drillers Are Going Electric—if They Can Get the Electricity 미 시추기업들, 증가하는 전력 소비량에 자체 전력망 구축 시도

- 텍사스의 셰일 기업들이 매일 시애틀 전기 소비량의 4배와 맞먹는 전기를 소비하고 있다.
- 시추업체들은 원유 생산량 증가와 더불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투자자와 대중의 압력에 직면하면서 시추를 위해 그동안의 디젤 발전기 사용을 줄이고, 전기 사용을 늘리고 있는 것이다.
- 그러나, 관련 기업들은 전기수요 병목현상으로 인해, 새로운 전력망 인프라 구축을 시도하고 있으나 한 전문가는 인프라가 구축되기까지 2~5년의 세월이 소요될 것이라 말했다.

WSJ 기사

WSJ: The \$400,000 Job Without a College Degree 월마트 매니저, 연 40만불까지 벌 수 있다

- 아마존이나 메이시스, Wayfair 같은 기업들이 일자리를 줄이고 있지만, 월마트의 스토어 매니저는 예외다.
- 월마트가 스토어 매니저들에게 더 많은 보너스와 주식 혜택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매해 2만불에 해당하는 주식제공과 200%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데, 월마트 스토어 매니저의 평균 기본급은 대략 12만 8천불이다. 이는 40만4천불까지 벌어들일 수 있다는 의미다.
- 월마트는 수천 명의 스토어 매니저들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들 중 다수가 대학 졸업장 없이 점원으로 시작해 승진한 경우다.

WSJ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미, 세계 최고 회복세...의회 필두로 정부·연준 대응 주효"****WP "미, 독일·일본 등 회복 능가...연착륙 달성"
"인플레·국가채무 문제는 흠...위기 대응서 배워야"**

독일의 익숙하지 않은 약점 노출로 위축된 유럽의 경제는 거의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과거의 영화를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고, 일본은 실망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 이르면 사정이 다르다. 인플레이션 불안에도 놀랍도록 강력한 경제는 주요 교역 상대국 모두를 능가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경제는 인플레이션 완화와 성장 지속으로 세계 최고의 회복세라며 이런 배경에는 위기에 대한 의회와 행정부, 연방준비제도(연준)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주효했다고 보도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